

서울시내 일부 대학생의 통과의례와 음식에 관한 인식조사 2보-상례와 제례

김 미 정
국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A Study on Seoul university students' recognition on passage rites and
foods-funeral rites and sacrificial rituals

Mee-Jeong Kim
Dept. of Food and Nutrition, Kookm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Seoul undergraduate students' thoughts on funeral rites and sacrificial rituals as well as ritual foods. A total of 542 students offered answers that the importance of sacrificial rituals was connected to filial piety for the ancestor, the customs descended from the past, and the belief that descendents received fortunes. The students didn't know the funeral rites process, but acknowledged they needed to know funeral rites, and would perform their parents' sacrificial rituals. We also found that students whose hometowns were Gangwondo and Jeju were familiar with sacrificial ritual foods as well as their preparation and cooking. Also, the older the students, the better they knew the funeral rites process, sacrificial rituals and ritual foods. There were great differences in sacrificial rituals according to parent and student religions. Buddhists knew the most about funeral rites and sacrificial rituals, followed by Roman Catholics and agnostics. Protestant Christians were not interested in sacrificial rituals. The funeral rites process and the handing down of sacrificial ritual food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sibling number. The more brothers and sisters in a family, the more committed they were to performing their parents' sacrificial rituals and the higher their interest in sacrificial ritual foods.

Key words : funeral rites, sacrificial rituals, sacrificial ritual foods, undergraduate students

1. 서 론

통과의례란 인간이 한 생명으로 어머니의 태중에서 열 달을 채워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는 중에 거치게 되는 여러 가지 행사를 말하며 사후에도 이 믿음은 계속되어 죽은 혼을 불러 예를 갖추는

제례도 통과 의례이다(김기숙 등 1999). 즉 인간이 태어나면 거치게 되는 삼칠일, 백일, 돌, 혼례, 상례, 제례 등을 말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의식에서 반드시 상을 차려 행사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통과 의례의 상차림은 세월의 변화와 함께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간소화 되어가고 있고(Kim IO과 Ahn HS 2003, Kim JM 등 2003) 우리의 일상생활의 형태가 변하고 사고방식이나 종교의 영향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사회의 도시화, 산업화 및 핵가족화 등의 요인으로 우리의 전통의식과 음식은 점차 쇠퇴되어가고 있다(Hong NY 등 2002, Jung BM 2005, Lee HG와 Oh MY 1995, Yoon SK와 Park

Corresponding author: Mee-Jeong Kim,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Kookmin University, 861-1 Jeongneung-dong, Seongbuk-gu, Seoul, 137-702, Korea
Tel: 82-2-910-5469
Fax: 82-2-911-4771
E-mail: skstella@kookmin.ac.kr

MN 1999).

Kim YI(1989)의 보고에 따르면 제사상차림은 가정이나 지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혼례상과 음식은 다르나 고여지는 양식은 같다고 하였다. Yoon US(1995)의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와 제주도 일부대학생들의 명절음식에 관한 관심도는 남녀 및 전공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76.11%가 명절 음식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명절 음식을 차리는 현황으로는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Yoon US와 Song TH(1995)의 보고에 의하면 경기도와 제주도의 일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9.8%가 향토음식을 거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향토음식의 계승여부에 있어서는 96.5%가 계승하여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전통의 식문화에 관한 사람들의 가치관은 많이 변화하고 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명절음식이나 향토음식에 관한 인식조사를 한 논문은 있으나 대학생의 통과의례에 대한 인식, 특히 상례와 제례에 대한 인식을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분석한 논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대학생들의 통과의례에 대한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식문화 전승에 기초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과의례 중 상례와 제례에 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아 식문화를 전수하고 좋은 점을 계속 이어 갈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과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서울시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식문화 등 교양과목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공별로 524명의 다양한 학생을 택하여 2006년 3월에서 5월까지 설문지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총 540부를 배포하였으나 이중 일부항목에 답이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524부(회수율 : 97.0%)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과 방법

조사내용은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사항과 상례와 제

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인 사항은 나이, 부모님의 출생지, 부모와 학생의 종교, 학생의 전공, 가족사항, 부모님의 직업, 형제 수, 가족 수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은 상례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와 일 년에 제사를 지내는 횟수와 제사의 의미, 자손이 제사를 지내 주기를 원하는지를 조사하였고, 5점 평점으로 조사한 항목은 상례의 절차, 상례의 절차 인지도의 필요성, 제례의 절차, 제사음식, 제수진설법 등의 항목을 조사하여 일반항목과의 관계를 통계분석 하였다. 설문지의 항목은 일반인의 제례의식을 조사한 Kim JG 등(2003)의 조사와 Yoon US(1995)의 대학생들의 명절음식에 관한 조사를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의 분석은 SPSS/PC Win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상례와 제례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은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는 남자 191명(36.5%)과 여자 333명(63.5%)으로 총 524명이었고 나이는 19세에서 21세 사이가 235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지는 서울(48.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18.1%), 경상도(16.0%)등의 순이었다. 부모님의 종교는 무교(34.7%)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27.7%), 불교(23.1%), 가톨릭교(14.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본인의 종교는 과반수 정도가 무교(47.0%)였고 기독교(27.9%), 불교(12.6%), 가톨릭교(12.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을 포함한 현재의 가족 수는 4명(68.7%)이 대부분이었으며, 본인은 첫째와 둘째가 거의 대부분으로 본인을 포함한 형제의 수는 2명(75.2%)이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질문에는 반 정도가 자영업, 사업(47.1%)에 종사한다고 하였으며 사무원이나 은행원(23.1%), 공무원이나 교사(14.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상례와 제례의 일반사항에 대한 인식

상례와 제례의 일반사항에 대한 인식은 Table 2와 3에 제시하였다. 상례와 제례에 대한 내용 중 5점 평점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일반적인 내용의 설문에서 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 지에는 응답자의 272명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일 년에 자신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횟수와 응답자수를 보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226명이었고 1번에서 4번 지내는 학생이 모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524)

| Characteristic | | N | % | Characteristic | | N | % |
|---------------------|------------------------|------|------|--|----------------------|--------------------------|-------|
| Gender | Male | 191 | 36.5 | Parent's religion | Buddhism | 121 | 23.1 |
| | Female | 333 | 63.5 | | Protestant Christian | 145 | 27.7 |
| Age(yr) | 19-21 | 235 | 44.8 | | Roman Catholics | 74 | 14.1 |
| | 22-24 | 178 | 33.9 | | Agnostics | 182 | 34.7 |
| | 25-28 | 61 | 11.6 | | Others | 2 | 0.4 |
| | | | | Buddhism | 66 | 12.6 | |
| Hometown | Seoul | 252 | 48.1 | My religion | Protestant Christian | 146 | 27.9 |
| | Gyeonggido | 95 | 18.1 | | Roman Catholics | 64 | 12.2 |
| | Chungcheongdo | 36 | 6.9 | | Agnostics | 246 | 47.0 |
| | Gyeongsangdo | 84 | 16.0 | | Others | 2 | 0.4 |
| | Gangwondo | 8 | 1.5 | | Parent's job | Public official, teacher | 78 |
| | Jeollado | 46 | 8.8 | Businessman, manufacturing ,freelancer | | 247 | 47.1 |
| | Jejudo | 3 | 0.6 | Office worker, bank | | 121 | 23.1 |
| Major | Liberal art | 91 | 17.4 | Professional | 27 | 5.2 | |
| | Engineering | 55 | 10.5 | Agriculture, fishing, livestock | 15 | 2.9 | |
| | Science | 18 | 3.4 | Clergyman | 7 | 1.3 | |
| | Social science | 80 | 15.3 | Unemployment | 29 | 5.5 | |
| | Management & economics | 139 | 26.5 | Sibling number | 1 | 26 | 5.0 |
| | Law | 31 | 5.9 | | 2 | 394 | 75.2 |
| Art & gymnastics | 110 | 21.0 | 3 | | 93 | 17.7 | |
| | | | 4< | | 11 | 2.2 | |
| Family number (no.) | 2 | 3 | 0.6 | Children's order | First | 276 | 52.7 |
| | 3 | 47 | 9.0 | | Second | 203 | 38.7 |
| | 4 | 360 | 68.7 | | Third | 40 | 7.6 |
| | 5 | 98 | 18.7 | | Fourth< | 5 | 1.0 |
| | 6< | 16 | 3.1 | | Total | 524 | 100.0 |

Table 2. Recognition of funeral rites and sacrificial rituals

| Variables | Category | Frequency | % |
|--|--|-------------|------|
| Experience of mourning | Yes | 272 | 51.9 |
| Frequency of sacrificial rituals a year(frequency/no.) | 0(226), 1(40), 2(88), 3(60), 4(54), 5(20), 6(8), 7(2), 8(6), 9(8), 10(6), 11(2), 12(4) | | |
| The meaning of the sacrificial rituals | Filial piety for the ancestor | 192 | 36.6 |
| | Customs descended from the past | 140 | 26.7 |
| | Thoughts that descendants received fortunes when they are worshiped to ancestor | 90 | 17.1 |
| | For family 's peace | 34 | 6.4 |
| | For family's tradition | 22 | 4.1 |
| | Because others do like that | 30 | 5.7 |
| | For religious process | 16 | 3.0 |
| | Performing sacrificial rituals by descendants | I do surely | 40 |
| Depending on their conditions | | 232 | 44.2 |
| I don't want | | 252 | 48.0 |

242명이었고 5번 이상을 지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제사의 의미를 묻는 항목에는 조상에 대한 효도가 192명,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이기 때문이 140명,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으로가 90명을 차지하여 아직도 조상을 섬기는 풍속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5점 평점법으로 상례와 제례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는 상례의식을 종교의식으로 하고 싶다는 평균 3.13을 보여 약간 그렇지 않다는 쪽 이었고, 상례과정을 잘 아는가는 3.40의 점수로 약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례의식을 알아야하는가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쪽의 평균값이 나와 학생들은 상례의식을 지금은 잘 모르고 있으나 알고 있어야한다 의식절차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례의식을 알아야 하는가와 제사 음식의 상차림을 후손에 전수해야하는가는 평균적으로 보통이라고 답하였고 나의 부모의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은 그러겠다는 쪽의 성향을 보였다. 제례음식에 대한 관심이나 제수진설법과 준비과정에 대해 알아야하는가는 약간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고 제수음식 대행업의 필요성에는 약간 그렇다고 답하여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의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Kim ES와 Ham SS(2001)의 보고에 의하면 제사의 필요성은 모든 연령에서 꼭 지내야 한다고 하였다.

3. 고향에 따른 상례와 제례의 인식

학생들의 고향에 따른 상례와 제례의 인식 차이는 Table 4와 같다. 상례절차와 상례를 알고 있어야한다

는 항목과 제사음식 상차림의 전통전수에 대해서는 고향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상례를 종교적인 의식으로 치르고 싶다는 항목($F=2.76, P<0.01$)과 제사절차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항목($F=2.60, P<0.01$)에서는 고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사음식에 대한 관심도($F=4.70, P<0.001$)와 제수진설법($F=4.62, P<0.001$), 제사음식의 조리법과 준비법을 잘 알고 있다($F=4.46, P<0.001$)는 항목에서는 고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강원도와 제주도가 고향인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였다.

4. 나이에 따른 상례와 제례의 인식

나이에 따른 상례와 제례의 인식 차이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종교의식으로 상례를 치르겠다고 부모님 제사를 지낼 것이다, 제사음식에 대한 관심과 제수의 대행업체의 필요성에대해서는 나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례의 절차를 알고 있는 정도($F=4.59, P<0.001$)와 제사절차 인지정도($F=3.43, P<0.001$), 제수진설법($F=3.76, P<0.001$)과 제수 조리와 준비법의 인지 정도($F=4.72, P<0.001$)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른 유의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잘 알고 있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통과의례를 배우게 되는 것으로 통과의례란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Kim ES와 Ham SS(2001)의 보고에 의하면 제사에 대한 생각은 연령이 높을수록 내려오는 법도에 따랐고 결혼하기 전 친정 부모나 결혼 후 시부모에게서 배운다고 하였다.

Table 3.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funeral rites and sacrificial rituals(N=524)

| Variables | Scores | | | | | Mean±SD |
|---|--------|-----|-----|-----|-----|-----------|
| | 1 | 2 | 3 | 4 | 5 | |
| Wish of mourning by religious ceremony | 74 | 82 | 162 | 114 | 92 | 3.13±1.27 |
| Knowledge of funeral rites process | 22 | 82 | 166 | 172 | 82 | 3.40±1.05 |
| Need of knowledge in funeral rites | 152 | 240 | 106 | 18 | 8 | 2.03±0.87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process | 54 | 186 | 130 | 86 | 68 | 2.86±1.19 |
| Need to hand down sacrificial rituals food | 46 | 124 | 192 | 100 | 62 | 3.02±1.12 |
| Will to perform my parent's sacrificial rituals | 244 | 126 | 90 | 26 | 38 | 2.02±1.22 |
| Interest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26 | 106 | 178 | 130 | 84 | 3.27±1.10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20 | 98 | 146 | 132 | 128 | 3.48±1.15 |
| Knowledge of preparation and cooking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4 | 120 | 126 | 126 | 118 | 3.33±1.23 |
| Need of vicarious execution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48 | 150 | 158 | 96 | 72 | 2.99±1.17 |

¹ 1. know very well (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 (disagree strongly)

5. 종교에 따른 상례와 제례의 인식

부모와 본인의 종교에 따른 상례와 제례의 인식차이는 Table 6, 7과 같다. 상례의 경우, 종교 의식으로 상례를 치르고 싶다는 항목에서는 부모, 학생의 종교가

기독교에서 특히 강하였고, 다음은 가톨릭, 불교, 무교 순 이었다. 그러나 상례절차에 대해서는 종교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제례의 인식차이는 그 어떤 항목보다도 종교에 의해 큰 유의적인 차이가

Table 4.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hometown

| Variables [†] | Hometown | | | | | | | F value |
|---|-------------------------|------------------------|-------------------------|-------------------------|------------------------|-------------------------|-------------------------|---------------------|
| | Seoul (N=252) | Gyeonggido (N=92) | Chungcheong do(N=36) | Gyeongsangdo (N=84) | Gangwondo (N=8) | Jeollado (N=46) | Jejudo (N=3) | |
| Wish of mourning by religious ceremony | 3.26±1.27 ^a | 3.09±1.32 ^a | 2.72±1.26 ^a | 2.98±1.15 ^a | 4.50±0.53 ^b | 2.84±1.42 ^a | 3.00±1.15 ^a | 2.76 ^{**} |
| Knowledge of funeral rites process | 3.34±1.13 | 3.55±0.96 | 3.50±1.05 | 3.36±1.01 | 3.00±1.30 | 3.38±0.88 | 4.50±0.57 | 1.07 |
| Need of knowledge in funeral rites | 1.99±0.96 | 2.19±0.89 | 2.17±0.76 | 1.95±0.70 | 1.50±0.53 | 2.02±0.72 | 2.00±0.00 | 1.28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process | 2.85±1.18 ^b | 3.09±1.27 ^b | 2.83±1.03 ^b | 2.81±1.32 ^b | 1.50±0.53 ^a | 2.80±0.81 ^b | 3.00±1.15 ^b | 2.60 ^{**} |
| Need to hand down sacrificial rituals food | 3.03±1.07 | 2.98±1.12 | 3.22±1.21 | 3.12±1.22 | 2.00±0.75 | 2.82±1.10 | 3.00±0.00 | 1.46 |
| Will to perform my parent's sacrificial rituals | 1.99±1.14 ^a | 2.09±1.24 ^a | 1.83±0.98 ^a | 2.21±1.53 ^a | 1.25±0.46 ^a | 2.00±1.01 ^a | 2.00±0.00 ^a | 2.41 [†] |
| Interest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3.33±1.08 ^{bc} | 3.49±1.03 ^c | 3.17±1.07 ^{bc} | 3.26±1.11 ^{bc} | 1.75±0.88 ^a | 2.87±1.02 ^{bc} | 2.50±0.57 ^{ab} | 4.70 ^{***}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60±1.12 ^c | 3.68±1.09 ^c | 3.11±1.01 ^{bc} | 3.43±1.29 ^c | 1.75±0.88 ^a | 3.13±1.03 ^{bc} | 2.50±0.57 ^{ab} | 4.62 ^{***} |
| Knowledge of preparation and cooking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32±1.21 ^{bc} | 3.79±1.07 ^c | 3.00±1.22 ^{bc} | 3.24±1.33 ^{bc} | 1.50±0.53 ^a | 3.29±1.25 ^{bc} | 2.50±0.57 ^b | 4.46 ^{***} |
| Need of vicarious execution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3.04±1.20 ^a | 3.02±1.10 ^a | 2.72±1.15 ^a | 3.14±1.19 ^a | 2.25±0.88 ^a | 2.71±0.91 ^a | 3.00±2.30 ^a | 2.36 [†] |

[†]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 SD

^{a-d}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5.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age

| Variables [†] | Age | | | F value |
|---|------------------------|-------------------------|------------------------|---------------------|
| | 19-21(yr) (N=235) | 22-24(yr) (N=178) | 25-28(yr) (N=61) | |
| Wish of mourning by religious ceremony | 3.23±1.24 | 3.06±1.28 | 3.02±1.32 | 1.20 |
| Knowledge of funeral rites process | 3.58±1.01 ^b | 3.41±1.06 ^b | 2.96±1.03 ^a | 4.59 ^{***} |
| Need of knowledge in funeral rites | 2.13±0.87 ^b | 1.98±0.89 ^{ab} | 1.86±0.82 ^a | 2.05 [†]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process | 2.93±1.18 ^a | 2.87±1.25 | 2.69±1.11 ^a | 3.43 ^{***} |
| Need to hand down sacrificial rituals food | 3.03±1.12 ^a | 3.08±1.11 ^a | 2.86±1.10 ^a | 2.49 ^{**} |
| Will to perform my parent's sacrificial rituals | 1.97±1.11 | 2.09±1.30 | 2.04±1.31 | 1.34 |
| Interest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3.31±1.10 | 3.28±1.09 | 3.16±1.13 | 1.56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65±1.18 ^b | 3.39±1.13 ^a | 3.22±1.07 ^a | 3.76 ^{***} |
| Knowledge of preparation and cooking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50±1.24 ^b | 3.23±1.21 ^{ab} | 3.12±1.20 ^a | 4.72 ^{***} |
| Need of vicarious execution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2.98±1.20 | 2.99±1.14 | 3.00±1.17 | 1.85 |

[†]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 SD

^{a-d}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제사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제사음식 상차림의 전수,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겠다는 의지는 부모($F=35.33$, $P=0.001$)와 학생의 종교($F=31.11$, $P<0.001$) 모두에서 불교가 가장 컸고 다음은 천주교, 무교, 기독교 순이었다. 제사음식에 대한 관심, 제수진설 법, 제사음식의 조리법과 준비법에 대한 인지도도 부모와 자신의 종교가 불교인 학생이 가장 컸고 다음은 천주교와 무교는 비슷하였으며, 기독교는 인지도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부모와 본인의

종교가 불교인 학생은 제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천주교와 무교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기독교에서는 제사의 필요성과 인지도에서 가장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제례의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Kim ES와 Ham SS(2001)의 보고에 의하면 불교를 믿는 사람은 71.7%가 제사를 꼭 지내겠다고 답하였으나 기독교와 천주교는 추도식의 형태로 바꾸겠다고 하였다.

Table 6.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parents' religion

| Variables ¹ | Parents' religion | | | | | F value |
|---|-------------------------|------------------------------|-------------------------|--------------------------|------------------------|----------------------|
| | Buddhism (N=121) | Protestant Christian (N=145) | Roman Catholics (N=74) | Agnostics (N=182) | Others (N=2) | |
| Wish of mourning by religious ceremony | 3.35±1.01 ^b | 2.26±1.22 ^a | 2.86±1.12 ^{ab} | 3.80±1.08 ^b | 2.00±0.00 ^a | 41.49 ^{***} |
| Knowledge of funeral rites process | 3.42±0.94 | 3.48±0.98 | 3.16±1.18 | 3.42±1.13 | 4.00±0.00 | 1.32 |
| Need of knowledge in funeral rites | 1.92±0.88 ^b | 2.23±0.93 ^b | 1.81±0.73 ^b | 2.03±0.84 ^b | 1.00±0.00 ^a | 4.41 ^{**}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process | 2.40±0.90 ^a | 3.68±1.25 ^b | 2.62±1.05 ^a | 2.62±1.05 ^a | 2.00±0.00 ^a | 30.11 ^{***} |
| Need to hand down sacrificial rituals foods | 2.65±1.00 ^b | 3.56±1.13 ^b | 2.81±0.96 ^b | 2.92±1.07 ^b | 1.00±0.00 ^a | 16.08 ^{***} |
| Will to perform my parent's sacrificial rituals | 1.53±0.88 ^a | 2.92±1.45 ^b | 1.73±0.98 ^a | 1.76±0.88 ^a | 1.00±0.00 ^a | 35.33 ^{***} |
| Interest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2.80±0.96 ^b | 3.97±0.93 ^c | 3.16±1.15 ^{bc} | 3.08±1.01 ^{abc} | 1.00±0.00 ^a | 28.96 ^{***}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13±1.16 ^a | 4.00±1.05 ^a | 3.43±1.13 ^a | 3.31±1.11 ^a | 3.00±0.00 ^a | 12.09 ^{***} |
| Knowledge of preparation and cooking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2.80±1.11 ^{ab} | 4.03±1.02 ^c | 3.22±1.24 ^{bc} | 3.19±1.22 ^{bc} | 2.00±0.00 ^a | 21.44 ^{***} |
| Need of vicarious execution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2.98±1.06 ^{ab} | 3.27±1.25 ^b | 2.76±1.10 ^{ab} | 2.87±1.18 ^{ab} | 2.00±0.00 ^a | 3.76 ^{**} |

¹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 SD

^{a-d}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7.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students' religion

| Variables ¹ | Students' religion | | | | | F value |
|---|-------------------------|------------------------------|-------------------------|-------------------------|------------------------|----------------------|
| | Buddhism (N=66) | Protestant Christian (N=146) | Roman Catholics (N=64) | Agnostics (N=246) | others (N=2) | |
| Wish of mourning by religious ceremony | 3.18±1.03 ^{bc} | 2.04±0.96 ^a | 2.75±1.06 ^{ab} | 3.87±1.02 ^c | 2.00±0.00 ^a | 78.07 ^{***} |
| Knowledge of funeral rites process | 3.30±0.94 | 3.40±0.97 | 3.28±1.13 | 3.46±1.11 | 4.00±0.00 | 0.66 |
| Need of knowledge in funeral rites | 1.85±0.93 ^b | 2.19±0.92 ^b | 1.75±0.66 ^{ab} | 2.06±0.86 ^b | 1.00±0.00 ^a | 4.44 ^{**}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process | 2.21±0.77 ^a | 3.70±1.20 ^b | 2.59±1.03 ^a | 2.62±1.07 ^a | 2.00±0.00 ^a | 32.65 ^{***} |
| Need to hand down sacrificial rituals food | 2.36±0.81 ^b | 3.59±1.07 ^c | 2.87±1.09 ^{bc} | 2.90±1.07 ^{bc} | 1.00±0.00 ^a | 20.26 ^{***} |
| Will to perform my parent's sacrificial rituals | 1.45±0.78 ^a | 2.86±1.51 ^b | 1.59±0.83 ^a | 1.80±0.93 ^a | 1.00±0.00 ^a | 31.11 ^{***} |
| Interest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2.73±0.93 ^b | 3.86±1.06 ^c | 3.06±1.20 ^{bc} | 3.13±0.98 ^{bc} | 1.00±0.00 ^a | 20.91 ^{***}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09±1.22 ^a | 4.00±1.02 ^a | 3.47±1.15 ^a | 3.28±1.12 ^a | 3.00±0.00 ^a | 12.14 ^{***} |
| Knowledge of preparation and cooking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2.73±1.11 ^{ab} | 4.00±1.03 ^c | 3.28±1.31 ^{bc} | 3.12±1.18 ^{bc} | 2.00±0.00 ^a | 19.46 ^{***} |
| Need of vicarious execution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2.91±1.09 | 3.21±1.22 | 2.84±1.07 | 2.93±1.19 | 2.00±0.00 | 2.09 |

¹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 SD

^{a-d}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6. 부모의 직업과 학생의 전공에 따른 상례와 제례의 인식

부모의 직업에 따른 학생의 상례와 제례의 인식 차이는 Table 8과 같다. 상례를 종교의식으로 하고 싶다(F=1.98, P<0.05)와 부모님 제사를 지내겠다(F=1.93, P<0.05)는 부모

의 직업이 종교인인 경우 조금 그러고 싶다고 답해 다른 직업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제사음식 대행업의 필요성에대해 공무원, 무직에서 그러겠다는 응답이 있어 직업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F=2.35, P<0.01). 학생의 전공에 따라 상례를 종교의식으로 하고 싶다는

Table 8.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parents' job

| Variables [†] | Parents' job | | | | | | | F value |
|---|---------------------------------|--|-----------------------------|-------------------------|--|------------------------|------------------------|--------------------|
| | Public official, teacher (N=78) | Businessman, manufacturing, freelancer (N=247) | Office worker, bank (N=121) | Professional (N=27) | Agriculture, fishing, livestock (N=15) | Clergyman (N=7) | Unemployment (N=29) | |
| Wish of mourning by religious ceremony | 3.03±1.29 ^b | 3.12±1.28 ^b | 3.32±1.18 ^b | 2.92±0.84 ^b | 3.57±1.43 ^b | 2.00±1.30 ^a | 3.01±0.93 ^b | 1.98 [†] |
| Knowledge of funeral rites process | 3.28±1.13 ^a | 3.41±1.11 ^{ab} | 3.50±0.99 ^{ab} | 3.15±0.88 ^a | 3.29±1.22 ^a | 4.00±0.00 ^b | 3.33±1.16 ^a | 1.88 [†] |
| Need of knowledge in funeral rites | 2.05±1.02 | 1.97±0.81 | 2.12±1.00 | 2.00±0.56 | 2.14±0.42 | 2.00±0.75 | 2.00±0.81 | 0.76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process | 2.82±1.32 | 2.85±1.16 | 1.89±1.25 | 2.77±1.07 | 3.07±1.22 | 3.50±1.60 | 2.80±1.05 | 0.35 |
| Need to hand down sacrificial rituals food | 3.05±1.29 | 3.05±1.15 | 2.96±1.10 | 2.85±0.96 | 2.86±1.15 | 2.50±1.19 | 3.20±0.81 | 1.12 |
| Will to perform my parent's sacrificial rituals | 2.28±1.37 ^a | 1.96±1.15 ^a | 1.91±1.13 ^a | 2.15±1.12 ^a | 1.64±0.84 ^a | 3.00±2.13 ^b | 2.13±1.44 ^a | 1.93 [†] |
| Interest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3.23±1.20 | 3.28±1.02 | 3.31±1.23 | 3.15±0.96 | 3.07±0.94 | 3.25±1.90 | 3.27±0.84 | 1.03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46±1.37 | 3.52±1.21 | 3.51±1.14± | 2.92±0.74 | 3.21±1.43 | 4.00±1.06 | 3.47±0.82 | 1.40 |
| Knowledge of preparation and cooking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33±1.41 | 3.34±1.2 ^a | 3.30±1.28 | 3.15±0.88 | 3.50±1.26 | 3.75±1.38 | 3.33±0.82 | 0.44 |
| Need of vicarious execution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2.59±1.42 ^a | 3.00±1.12 ^{ab} | 3.22±1.23 ^{ab} | 3.15±1.04 ^{ab} | 2.93±0.30 ^{ab} | 3.50±1.19 ^b | 2.73±1.07 ^a | 2.35 ^{**} |

[†]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 SD

^{a-d}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9.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students' major

| Variables [†] | Students' major | | | | | | F value | |
|---|-------------------------|-------------------------|------------------------|-------------------------|--------------------------------|------------------------------|-------------------------|---------------------|
| | Liberal art (N=91) | Engineering (N=55) | Science (N=18) | Social science (N=80) | Management & economics (N=139) | Law(N=31) gymnastics (N=110) | | |
| Wish of mourning by religious ceremony | 3.07±1.31 ^{ab} | 3.19±1.23 ^{ab} | 3.44±0.85 ^b | 3.33±1.43 ^{ab} | 3.30±1.30 ^{ab} | 3.07±1.41 ^b | 2.77±1.01 ^a | 3.04 ^{***} |
| Knowledge of funeral rites process | 3.37±0.92 ^a | 3.26±0.92 ^a | 4.11±0.75 ^b | 3.40±0.97 ^a | 3.41±1.22 ^a | 3.47±0.90 ^a | 3.36±1.05 ^a | 1.95 [†] |
| Need of knowledge in funeral rites | 1.89±0.76 | 2.04±1.25 | 2.56±0.85 | 1.85±0.73 | 2.04±0.91 | 2.20±0.84 | 2.11±0.99 | 1.52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process | 2.74±1.21 | 2.96±1.50 | 3.56±1.19 | 2.75±1.02 | 2.80±1.20 | 2.93±1.08 | 2.95±1.27 | 1.25 |
| Need to hand down sacrificial rituals food | 3.00±1.10 | 3.11±1.52 | 3.56±1.19 | 2.93±1.06 | 2.90±1.09 | 2.93±0.94 | 3.13±1.14 | 1.59 |
| Will to perform my parent's sacrificial rituals | 2.13±1.16 ^a | 2.44±1.45 ^a | 1.89±1.02 ^a | 1.90±1.26 ^a | 1.88±1.20 ^a | 2.07±1.31 ^a | 2.00±1.22 ^a | 2.73 ^{**} |
| Interest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3.28±1.16 ^{ab} | 3.30±1.16 ^{ab} | 3.67±0.97 ^a | 3.03±1.11 ^a | 3.32±1.07 ^{ab} | 3.47±1.04 ^{ab} | 3.23±0.97 ^{ab} | 2.58 ^{**}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30±1.23 ^a | 3.44±1.14 ^a | 4.44±0.70 ^b | 3.40±1.16 ^a | 3.43±1.16 ^a | 3.60±1.10 ^a | 3.55±1.06 ^a | 2.37 ^{**} |
| Knowledge of preparation and cooking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13±1.35 ^a | 3.41±1.12 ^{ab} | 4.22±0.80 ^c | 3.15±1.15 ^a | 3.28±1.19 ^{ab} | 3.80±1.12 ^{bc} | 3.39±1.25 ^{ab} | 2.76 ^{**} |
| Need of vicarious execution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2.83±1.17 ^{ab} | 3.33±1.31 ^b | 3.33±1.18 ^b | 2.98±1.22 ^{ab} | 2.84±1.16 ^{ab} | 2.73±1.20 ^a | 3.16±1.05 ^{ab} | 2.00 [†] |

[†]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 SD

^{a-d}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항목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겠다고와 제사음식에 대한 관심도, 제수 진설법, 제수조리법의 인지도에는 전공별도 $P<0.01$ 의 유의차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순수과학 전공 학생들은 부모님의 제사는 지내고 싶지만 제사음식이나 제수 진설법, 제수조리법에는 관심도 없고 인지도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Yoon US(1995)의 보고에 따르면 경기도와 제주도 일부대학생들의 명절음식에 관한 관심도는 남녀 및 전공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Kim ES와 Ham SS(2001)의 보고에 의하면 다른 직업에 비해 자영업의 경우 58.8%가 꼭 지내겠다고 답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다.

7. 가족 수와 형제 중 서열에 따른 상례와 제례의 인식

가족 수와 형제 수 형제간의 서열에 따른 상례와 제례의 인식차이는 Table 10, 11, 12와 같다. 상례절차를 잘 알고 있는가의 항목에서 가족 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F=4.90$, $P<0.001$) 이것은 가족 수가 들인 집안에서는 상을 당해 본 경험이 잇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제사음식에 대한 관심도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나 다른 상례와 제례의 인지도는 가족 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수에 따라서는 상례절차($F=3.39$)와 제사음식상차림의 전수($F=4.44$)에 대한 인식은 $P<0.01$ 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제사절차와 제수진설법, 제수조리법에

Table 10.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family number

| Variables [†] | Family number | | | | | F value |
|---|------------------------|------------------------|-------------------------|-------------------------|-------------------------|---------------------|
| | 2(N=3) | 3(N=47) | 4(N=360) | 5(N=98) | 6<(N=10) | |
| Wish of mourning by religious ceremony | 3.00±0.00 | 3.18±1.48 | 3.16±1.26 | 3.12±1.23 | 2.44±1.29 | 1.27 |
| Knowledge of funeral rites process | 1.00±0.00 ^a | 3.00±1.15 ^b | 3.41±1.04 ^b | 3.58±0.98 ^b | 2.89±1.23 ^b | 4.90 ^{***} |
| Need of knowledge in funeral rites | 1.00±0.00 | 1.88±0.84 | 2.05±0.91 | 1.98±0.78 ^a | 2.22±0.94 | 1.03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process | 1.00±0.00 | 3.12±1.20 | 2.91±1.19 | 2.75±1.12 | 2.67±1.60 | 1.91 |
| Need to hand down sacrificial rituals food | 1.00±0.00 ^a | 3.29±1.29 ^b | 2.98±1.09 ^b | 3.08±1.03 ^b | 3.11±1.56 ^b | 2.26 [*] |
| Will to perform my parent's sacrificial rituals | 2.00±0.00 | 2.53±1.44 | 2.01±1.17 | 1.92±1.20 | 2.22±1.66 | 1.74 |
| Interest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2.00±0.00 ^a | 3.82±1.16 ^b | 3.26±1.10 ^{ab} | 3.19±1.03 ^{ab} | 3.11±1.32 ^{ab} | 3.03 ^{**}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2.00±0.00 | 3.71±1.19 | 3.54±1.14 | 3.33±1.16 | 3.22±1.35 | 1.76 |
| Knowledge of preparation and cooking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2.00±0.00 | 3.53±1.10 | 3.39±1.20 | 3.19±1.29 | 3.00±1.53 | 1.46 |
| Need of vicarious execution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2.00±0.00 | 3.06±1.49 | 2.99±1.16 | 2.97±1.15 | 2.89±1.13 | 0.63 |

[†]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 SD

^{a-d}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11.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sibling number

| Variables [†] | Brother & sister number | | | | F value |
|---|-------------------------|-------------------------|-------------------------|-------------------------|---------------------|
| | 1(N=26) | 2(N=394) | 3(N=93) | 4<(N=11) | |
| Wish of mourning by religious ceremony | 3.00±1.49 | 3.16±1.29 | 3.11±1.18 | 2.40±1.07 | 1.18 |
| Knowledge of funeral rites process | 3.15±1.25 ^{ab} | 3.40±1.04 ^{ab} | 3.55±1.02 ^b | 2.40±1.07 ^a | 3.39 ^{**} |
| Need of knowledge in funeral rites | 2.08±0.93 | 2.00±0.89 | 2.11±0.79 | 2.00±0.94 | 0.34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process | 3.46±1.36 ^b | 2.87±1.19 ^{ab} | 2.75±1.11 ^{ab} | 2.40±1.57 ^{ab} | 2.54 [*] |
| Need to hand down sacrificial rituals food | 3.62±1.52 ^b | 2.96±1.10 ^{ab} | 3.16±1.01 ^{ab} | 2.20±1.03 ^a | 4.44 ^{***} |
| Will to perform my parent's sacrificial rituals | 3.00±1.54 ^b | 1.99±1.16 ^{ab} | 1.95±1.20 ^{ab} | 1.80±1.68 ^{ab} | 4.92 ^{***} |
| Interest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4.15±1.25 ^c | 3.28±1.09 ^{bc} | 3.11±0.96 ^{bc} | 2.60±1.43 ^{ab} | 6.62 ^{***}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4.08±1.23 ^a | 3.50±1.16 ^a | 3.34±1.07 ^a | 2.80±1.22 ^a | 3.15 [*] |
| Knowledge of preparation and cooking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85±1.19 ^a | 3.38±1.21 ^a | 3.13±1.26 ^a | 2.60±1.43 ^a | 3.01 [*] |
| Need of vicarious execution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3.38±1.52 | 2.98±1.18 | 2.89±1.08 | 3.00±0.66 | 1.29 |

[†] 1. know very well(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 SD

^{a-d}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Table 12. Comparison of mean scores of attitude towards passage rites according to children's order

| Variables [†] | Children's order | | | | F value |
|---|------------------------|------------------------|-------------------------|------------------------|---------------------|
| | First (N=276) | Second (N=203) | Third (N=40) | Fourth (N=5) | |
| Wish of mourning by religious ceremony | 3.12±1.27 | 3.06±1.33 | 3.55±0.98 | 3.00±1.15 | 1.49 |
| Knowledge of funeral rites process | 3.44±1.03 | 3.38±1.08 | 3.35±1.02 | 2.00±1.15 | 2.08 |
| Need of knowledge in funeral rites | 2.08±0.91 | 1.97±0.85 | 1.95±0.74 | 2.00±1.15 | 0.53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process | 3.00±1.26 ^b | 2.81±1.13 ^b | 2.40±0.74 ^b | 1.00±0.00 ^a | 5.34 ^{***} |
| Need to hand down sacrificial rituals food | 3.04±1.15 ^b | 3.05±1.10 ^b | 2.90±0.84 ^b | 1.00±0.00 ^a | 3.93 ^{**} |
| Will to perform my parent's sacrificial rituals | 2.16±1.31 ^a | 1.96±1.15 ^a | 1.55±0.67 ^a | 1.50±0.57 ^a | 3.61 ^{**} |
| Interest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3.31±1.13 ^b | 3.37±1.08 ^b | 2.70±0.64 ^{ab} | 1.00±0.00 ^a | 6.64 ^{***} |
| Knowledge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60±1.25 ^b | 3.43±1.04 ^b | 3.05±0.81 ^{ab} | 2.00±0.00 ^a | 4.05 ^{**} |
| Knowledge of preparation and cooking of sacrificial rituals foods | 3.47±1.24 ^b | 3.25±1.22 ^b | 3.00±1.01 ^b | 1.50±0.57 ^a | 4.17 ^{**} |
| Need of vicarious execution in sacrificial rituals foods | 3.01±1.17 | 3.00±1.23 | 2.80±0.99 | 2.50±0.57 | 0.81 |

[†] 1. know very well (agree strongly) 3. neutral 5. never (disagree strongly)

All values are Mean ± SD

^{a-d} means in the row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1, *** p<0.001

대해서는 형제 수에 따라 약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반면 부모님 제사를 꼭 지내겠다는 의지(F=4.92)와 제사음식에 대한 관심(F=6.62)은 형제수가 많을수록 커서, 유의적으로(P<0.001)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형제 중 몇째인지와 상례와 제례의 인지도에서는 제사절차(F=5.34, P<0.001)와 제사음식에 대한 관심(F=6.64, P<0.001)은 서열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는데 첫째보다는 서열이 내려갈수록 관심이 유의적으로 크다고 나타나 맏이가 상례와 제례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제사음식상차림의 전통전수인식과 부모님 제사를 지내겠다, 제수진설 법, 제수조리법의 인지도에 대한 항목에서 형제간의 서열에 따라 P<0.05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첫째 보다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러겠다고 답하였고 인지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결론

서울 시내 일부 대학생의 통과의례 중 상례와 제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제사의 의미를 묻는 항목에는, 조상에 대한 효도라는 의미에 가장 많이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이기 때문에와 조상을 잘 섬겨야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 순으로 많은 수를 보

여 아직도 조상을 섬기는 풍속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례과정을 잘 모른다고 하였으나 상례의식을 알아야하는가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쪽의 평균값이 나와 학생들은 상례의식을 지금은 잘 모르고 있으나 알고 있어야 하는 의식절차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부모의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은 그러겠다는 쪽의 성향을 보여 아직 우리 민족의 조상 숭배의 사상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제수음식 대행업의 필요성에는 약간 그렇다고 답하여 편리함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의 경향을 알 수 있었다.

2. 제사음식에 대한 관심도와 제수 진설법, 제사음식의 조리법과 준비법을 잘 알고 있다는 항목에서는 고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강원도와 제주도가 고향인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여 시골일수록 전통의례의 관심이 큼을 알 수 있었다. 상례의 절차를 알고 있는 정도와 제사절차 인지정도, 제수진설과 제수 조리와 준비법의 인지 정도에 대해서는 나이에 따른 유의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잘 알고 있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통과의례를 배우게 되는 것으로 통과의례란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하였다.

3. 제례의 인식차이는 그 어떤 항목보다도 종교에 의해 큰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제사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제사음식 상차림의 전수,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겠다는 의지, 제사음식

에 대한 관심, 제수진설 법, 제사음식의 조리법과 준비법에 대한 인지도도 부모와 자신의 종교가 불교인 학생이 가장 컸고 다음은 천주교와 무교는 비슷하였으며, 기독교는 인지도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부모와 본인의 종교가 불교인 학생은 제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천주교와 무교는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기독교에서는 제사의 필요성과 인지도에서 가장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가 다른 어떤 것보다 제례의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4. 형제 수에 따라서는 상례절차와 제사음식상차림의 전수에 대한 인식은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제사절차와 제수진설 법, 제수조리법에 대해서는 형제 수에 따라 약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반면 부모님 제사를 꼭 지내겠다는 의지와 제사음식에 대한 관심은 형제수가 많을수록 커서 형제수가 많을수록 전통의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형제 중 첫째보다는 서열이 내려갈수록 관심이 유의적으로 크다고 나타나 맏이가 상례와 제례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제사음식상차림의 전통전수인식과 부모님 제사를 지내겠다, 제수진설 법, 제수조리법의 인지도에 대한 항목도 첫째 보다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러겠다고 답하였는데 이것은 맏이는 꼭 알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알고 싶어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작용하였고 서열이 내려갈수록 해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상례와 제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였던 바 대학생들은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후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례와 제례의 인식차이는 고향, 종교, 전공, 형제 수, 형제 중 몇째인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므로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예법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식문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차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식문화 교육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상례와 제례의 음식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 김기숙, 김미경, 안숙자, 이숙영, 한경선. 1999. 식품과 음식 문화. 교문사. 서울. pp152-153
- Hong NY, Lee EJ, Park SH. 2002.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Korean wedding culture in the 20th century. Korean Human Economics Association 40(11) : 141-156
- Jung BM. 2005. Comparison on the ritual food of Yeosu and Pusan area. Korean J Food Cookery Sci 21(3) : 271-282
- Kim ES, Ham SS. 2001. The survey on the practice of ancestral service food in Chuncheon area.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1(4):235-246
- Kim IO, Ahn HS. 2003. The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consciousness and actual services of ancestral rite. Korean Human Economics Association 41(3):113-129
- Kim JG, Kim JM, Chang SH. 2003. Research on the recognition of the ritual ceremony.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3):145-154
- Kim JM, Chang SH, Kim JG. 2003. Research on the comparison on the ritual food of Gyeonggi and Gyunggangbuk-do province. Korean J Food Cookery Sci 19(3) : 562-570
- Kim YI. 1989. A study on the table setting of Korean ceremonial foods. Korean J Dietary Culture 4(3):213-219
- Lee HG, Oh MY. 1995. Consciousness, knowledge and food preferences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 65-87
- Yoon SK, Park MN. 1999. A study on the dietary culture of east sea province in Gyunggangbuk-do(II). Korean J Dietary Culture 14(2), 83-102
- Yoon US, Song TH. 1995. A study of the consciousness on the Korean folk foods. Korean J Food Cookery Sci 11(2) : 145-152
- Yoon US. 1995. A study on the knowledge on the Korean festival foods. Korean J Food Cookery Sci 11(2) : 140-144

(2007년 2월 20일 접수, 2007년 4월 23일 채택)